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분별하는 지혜

(마 7:6)

Wisdom of Discernment

(Matt. 7:6)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바른 비판과 지적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Jesus teaches us the wisdom of not judging despite the necessity of the work to people who cannot receive it.

1. 거룩한 것과 진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6절).

거룩은 죄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죄와 무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절대적인 청결이고,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므로 본질상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러진 우리들의 마음과 언어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권고나 책망은 거룩한 것입니다.

1. A sacred thing and pearl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hen turn and tear you to pieces” (Matt. 7:6).

A sacred thing that is isolated from sin means no relation with sins. Holiness means that it is cleanliness and absolute and complete, physically and spiritually pure in every way. We who are depraved sinners are essentially not able to be sacred. Nevertheless, the Bible calls us holy people or saints. This is because we are God’s people who are chosen by the holy God.

2. 개와 돼지

예전부터 개와 돼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개, 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했습니다.

2. Dogs and pigs

From old times, dogs and pigs have been considered unworthy and repellent animals to people. Jewish people have thought that they themselves are chosen people by God and the gentiles are spiritually unworthy just like the dog and pig. Especially, at the time of Jesus,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a holy people recognized by most. However, surprisingly Jesus said that the scribes and Pharisees are the dogs and pigs. They who were never able to be clean gave themselves up to monism. That’s why they criticized other people with their own yardstick and pretended to be sacred.

This tex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blame those who are wicked and profane, but we should have wisdom and discernment to understand that they may not be ready to receive what we have to offer. If they are not ready to do anything, no matter how precious pearl we throw to them, they will think that we are throwing them a stone. Dogs and pigs do not have any ability to distinguish what is sacred with what is profane.

David had experienced committing a heavy sin through the taking of another’s wife. However, after he committed the sin, when the prophet Nathan approached him and blamed him, just like a sacred pearl he received it immediatel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거룩한 책망과 진주 같은 충고를 받게 되면 다윗과 같이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경직 목사님께서 싸우지 않고 평안하지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은 끝없는 다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다툼이라도 모두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unconsciously have huge possibilities to commit sin. However, when we commit a sin, if we are rightfully blamed by or from someone, we must receive it with a humble heart like David.

Rev. Han Kyung Jik said that if a Church does not quarrel and is in peace, the Church naturally revives and grows.

The fact that we criticize each other brings us to endless quarrel. However, I hope that any quarrel should be stopped and be replaced fully with Christ’s harmony and peace, where God’s children should be. Consequently, by making God’s heart refreshe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childr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2 사명자 대회, 뜨겁게 진행 중

매주 토요일 : 온가족 토요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6일(금) 17일(토) 18일(주일) - VIP초청 새생명축제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2012년 사명자대회가 은혜중에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새벽기도회(10월 13일~11월 24일, 7회)는 박노철 담임 목사를 강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특별새벽기도회(오전5시30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주위의 전도 대상자인 VIP 대상은 이미 5,300여명을 넘었고(지난 10월 28일 집계 결과) 이들을 위해 성도와 교회가 더불어 기도 중에 있다. 또한 그들을 우리교회로 초청하는 『VIP초청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5,000명의 VIP와 1,000명의 방문자와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11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오전 5시에 진행된다.

아직도 VIP선정을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 비치 된 작성카드에 항목을 채워서 교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2013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서

11월11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3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오는 11월 11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8일(목) 웨스트민스터 홀, 오전 8시 40분~ 오후 5시 35분

2013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당일인 11월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추어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기도 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번 기도회는 고등부(지도 이종진 목사 부장: 진교남 집사) 교사들이 봉사하며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소요 시간	인도
1	언어	08:40~10:00	80분	찬양 :오세광 목사 말씀 :한상은 목사 황 광 목사
2	수리	10:30~12:10	100분	찬양 :오세광 목사 말씀 :박노철 목사 황 광 목사
	점심시간	12:10~13:10	60분	점심시간
3	외국어(영어)	13:10~14:20	70분	찬양 :오세광 목사 말씀 :서명철 목사
4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24	94분	찬양 :오세광 목사 말씀 :정수길 목사/장석남 목사
5	제2외국어/한문	16:55~17:35	40분	말씀 :유문건 목사

제42학기 목회자 세미나 및 열린프로그램 금주 중 종강

'전도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지난 9월3일(월) 개강하였던 제4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교회 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금주 중 각 과목별 일정에 따라 모두 종강한다.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는 10 years round table members가 2명, 4학기 수료자가 18명 배출되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갱신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주민과 성도들이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목회자신학세미나 10 years round table members 명단>
양옥순 (학번: 00-4654), 김정범 목사(학번: 01-0115)

<4학기 수료자>

김명곤(10-215) 김영화(09-072) 김종성(07-038) 박노희(01-0254) 박소열(07-523) 박진희(10-074) 박태수(06-141) 변수자(10-002) 신정순(11-013) 이수자(11-002) 이용태(11-065) 이용한(06-136) 이진리(10-203) 장기자(10-270) 정해단(95-2842) 지봉숙(09-577) 한영만(94-1912) 형기석(11-030)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9]

(문 67) 모세 5경중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서에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5경은 모세의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까?

(답) : 모세는 느보산정에서 가나안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고(신 34:5)알려지지 않은 모양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습니다.(6)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신34장의 저자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신 31:24)까지만 모세의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Hengstenberg) 또 어떤 이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33장까지만 모세의 기록일 것으로 말합니다.(Schultz) 그런가하면 모세는 자기 죽음과 그 이후를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서 끝장(34장)까지 모세의 기록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Philos, Josephus) 분명한 것은 모세는 죽었고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장되었던 것입니다.(신 34:5-6)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죽음에 관한 것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의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고 영감을 받아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얘기를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모세에게 의존케 하려고 모세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썼을 것(10절 이하)이라고 보았습니다.(G.L. Archer)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완성된 작품에 부고장 또는 추모사를 삽입했을 경우 그 책의 저자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책상 위에는 J.M Boice가 쓴 Whatever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라는 책이 놓여있습니다. 그 책을 펴자마자 영국의 St. Andrews의 E.J. Alexander가 2000년 6월 23일 금요일에 Boice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조사를 써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Alexander와 공저가 아니라 Boice의 책입니다. 신 34장은 모세의 부고장입니다. 부고장에는 본인의 싸인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으로 모세는 모세오경 전체의 기록자임이 분명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대치1동 경로잔치

11월6일(화) 오전 11시 8층 만나홀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대치1동에서 주최하는 경로잔치가 우리교회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고자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대치1동 주민 중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및 경로잔치를 갖는 행사로 우리교회 만나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목회자세미나를 마치며

전도의 사명, 다시 고취시키다!

이대복 목사(남양주 소망교회)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처음 등록하게 되어 '전도와 교회성장'이라는 주제로 참석하였습니다. 귀한 강의를 통해 많은 도전과 사역의 충전함을 가짐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강해하신 김정우 교수님의 강의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비유와 삶의 간증을 하셔서 보다 더 알기쉽게 가르쳐 주셨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특히 유머와 재치가 넘치면서도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셔서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를 주제로 국내의 유명한 모든 강사를 섭외 하셔서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었는지 모릅니다. 진돗개 전도법, 빌립 전도법, 오이 코스 전도법 등 매주 다양하고 영성있는 전도 강의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눈

물을 흘려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전도강사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저의 가슴에도 구령의 열정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강사의 강의 시간에 너무 재미있어서 손뼉을 치며 웃기도 하고, 영혼 사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전도자의 간증에 너무 가슴 아파 울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전도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전도의 사명을 다시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잘 운영하여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 차를 대접하신 성도님들, 등록을 돕고 안내를 도우신 성도님들, 주차와 행정을 도우신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갱신하기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서울교회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 그 외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몸 되신 교회에서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부합한 삶의 중심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하신 지상사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앞장서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되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하신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실천해 나감으로 항상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인도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오상수 집사(13교구)

천국시민양성

자녀를 위한 기도회

박혜정 집사(고등부 교사)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메아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 12:40부터 604호에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고등부 교사와 학부모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 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도고, 자녀들의 바른 신앙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성장하기 위한 간구를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고등부에 출석하는 학부모뿐 아니라 예배와 교회 학교를 소홀히 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재학생, 초등생 자녀를 둔 어머니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입 수능을 앞둔 요즘은 고3 어머니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은 2013학년도 대입수능일, 12년 혹은 그 이상 이 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올해에도 고등부에서는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는 08:40부터 5교시 시험을 마치는 17:35까지 과목별 시험시간에 맞추어 오세광 목사님의 찬양인도로 마음 문을 열고 박도철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의 말씀 선포와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2013학년도 대입수능생을 위한 기도회'에 입시생이 있는 VIP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수험장까지 데려다주고 아침식사를 못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약간의 떡과 따뜻한 차도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처럼 우리 고등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부모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공동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시어 대학 진학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2. 두려워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소서.
3.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소서.
4. 대학 진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소서.
5.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이젠, 떠나지 않으리라!

정기숙 성도 (13교구)



몹시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불 한 잔 달라며 찾아온 두 분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시원한 '물 한 잔만 먹여서 보내야지' 하고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기나긴 신앙의 방학과 방황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저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귀찮거나 밉지 않았고, 빨리 보내야겠다는 마음은 쪽 들어가고, 전하는 말씀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이어지는 전도사님의 드라마틱한 간증을 통하여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기에 닭 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과 발로 나를 교회로 이끈 사람들은 전도자들이 아닐까요? 서울교회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예배는 더없이 숭고하고 성스러웠습니다. 그간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들어 25년간이나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25년만에 다시 찾은 성전! 하나님 아

버지 전에 앉은 나는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과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담임목사님의 주옥같은 설교! 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목사님의 첫 설교는 '기억하시는 은혜(창 8:1)'로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지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전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그간 저는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의 길로 들어서서 25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생이 지옥 같은데 죽어 지옥에 간들 이보다 더하랴 싶은 맘에 하루 빨리 죽는게 소원이라고 생각하곤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요즘은 감사의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서울교회로 이끌어 주신 전도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신 새가족부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전국시민양성 - 꿈나무 영어 성품스쿨



김재형 (초등부)

저는 지금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께서 나도 모르게 신청하셔서 하기가 싫었습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놀고도 싶고, 아침 일찍 나와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다행히 내 친구 은빈이도 한다고 해서 같이 꿈나무 스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받고, 난 정말 신청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가방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영어로도 배우니 재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품 중 먼저 감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했고, 표현하지 않았던 감사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동안 감사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잘 안되면 불평하고 짜증부터 냈는데,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20번 외치라고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어느새 화가 난 마음이 가라앉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시는 대로, 매일 매일 감사노트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감사하게 되었고,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에서 다른 성품들도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닦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솜씨 자랑, 3대 찬양대회

가을의 길목에서 살림경로대학생들이 1년동안 익히고 준비한 솜씨를 자랑하고 세대간의 소통과 화목을 다지는 어르신들 잔치가 열린다.

- 일시 : 2012년 11월4일(주) 오후 3시~ 4시30분
- 장소 : 웨스트민스터홀 (101홀)
- 내용 : 1부 - 찬양 (합창/ 이종창/ 독창), 아름다운체조, 시낭송, 특별찬양(섹스폰/바이올린/독창) 2부-3대찬양대회 자유곡 1곡 (찬송가 혹은복음성가중)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사랑부(부장: 이승우 집사)에서는 '천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1일(주) 3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 찬양대(부장: 성준경장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태왕 집사의 지휘로 "늘 지켜주시리", "문들어 머리들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3곡을 오르가니스트 김정희 선생, 피아니스트 박수강 집사의 반주로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8일(목) Light Mission 선교사 시상식에서 축복기도를 한다. 9일(금)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초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한다.
- 이사 : 12교구 홍성주 장로 여현진 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593-2 (031-272-0593)
- 취임 : 백경화 집사(4교구,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 문화예술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사회지도층, 전문직 및 기업 CEO)/CAPO Krua(카포 크누아) 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
- 초대작가 특별 기획전 : 4교구 류기찬 집사 10월 27일(토)~11월 24일(토) 서산버드랜드 4D영상관 기획전시실
- 주간식당봉사 : 모세선교회(11.4) 이삭선교회(11.11)
- 금주의 식사 : 윤영구 집사 김영옥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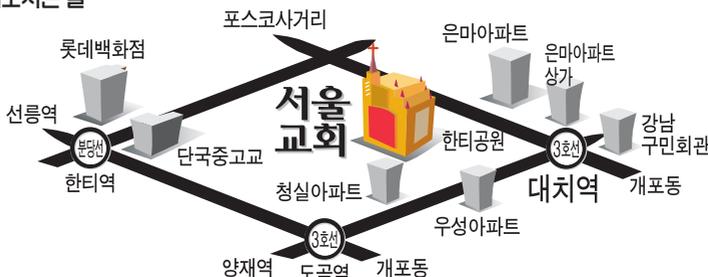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5,400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도록
2. 이제 3번 남은 토요일특별새벽기도회에 더욱 더 많은 가정들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3. 영혼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수고가 11월 16-18일까지 있는 새생명 축제에 1,000명의 VIP들의 초대와 300명 이상의 결신자들로 열매 맺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